



NH농협손보, 안산서 2020 사업추진 결의대회 NH농협손해보험은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안산에서 '2020년 사업추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최창수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앞줄 왼쪽에서 아홉 번째)와 임직원들이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안산에서 열린 '2020년 사업추진 결의대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손해보험



신협중앙회, 시무식 개최 신협중앙회는 지난 3일 대전광역시 중앙회관 대강당에서 시무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신협, 미래 100년'을 향해 힘찬 출발을 했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협중앙회



장석연 과기2차관, 원도7 지원종료 대응 상황실 방문 장석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3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설치된 '원도7 기술지원 종료 대응 종합상황실'을 방문했다. 장 차관은 새로운 악성코드 감염과 해킹 위험 노출 등 사이버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장석연 제2차관(오른쪽)이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과 함께 사이버 위협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은, 신임 본부장에 이동환·박경순 선임

한국수출입은행이 신임 본부장 2명을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

수은은 신임 본부장에 이동환 리스크관리부장과 박경순 청주 지점장을 각각 승진 임명했다.

이동환 신임 본부장은 재무관리실장, 울산지점장, PF 지원실장 등을 역임한 리스크관리·여신 전문가로, 리스크관리 본부를 총괄할 예정이다.

박경순 신임 본부장은 인사부장, 기획부장 등을 역임했다. 남북협력기금



이동환 신임 본부장 박경순 신임 본부장

과 EDCF 등 기금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남북협력본부 및 인사부를 지휘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박애란 변호사

서울시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에 박애란 변호사(40·사진)를 임명한다고 5일 밝혔다.

박애란 위원은 법조공익모임 나우에서 공익변호사로 상근하며 공익소송과 공익신고 및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했다. 환경부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 변호사, 청양 강정리 석면·폐기물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김현정기자 hik1@



시는 2016년 2월 전국 최초로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현재 위원장을 포함해 6명의 시민감사옴부즈만과 30여명의 조사관들이 활동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선정



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을 읽기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대표의 개념을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다. "사용자는 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이 그 내용이다.

그 외에도 근로기준법 제70조 제3항은 임산부 및 18세 미만자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행에 있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시행이

후 여러 사업장에서 도입하고 있는 유연근로시간제 중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 재량근로시간제(제58조 제3항),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제58조 제2항) 등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은 여러 조항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또는 '성실한 협의'를 각 제도의 법정 요건 내지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근로자대표와 관련해서 일부 근로자집단에만 적용되는 제도 도입 시, 예를 들어 일부 직종, 직급에 대해서만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되어야 하므로 하나의 사업이 수 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시간제도를 사업 단위로 도입하고자 하면 근로자대표는 사업 단위로 선정하고, 또는 일부 사업장에만 도입하고자

하면 사업장 단위로 선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일부 부서에만 유연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자 하더라도 근로자대표는 반드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해야 하고,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과반수를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또는 협의를 구하는 관련 제도의 내용, 적용 대상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를 위 제도의 영향을 받는 해당 근로자집단의 과반수를 기준으로 선정함이 타당하다는 비판이 있다.

근로자대표 선정 시에는 후보 출마 등에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되어야 하고, 근로자대표에게 주어지는 대표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근로자들이 인식한 상태에서 근로자대표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근로자대표는 1명이나 복수로 선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선정 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향후 논란의 방지 등을 위해 근로자대표 선정과 관련된 문서 등은 보존함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 바른

손태승 회장 “글로벌 초일류 금융기관 도약”

우리은행 창립 121주년 기념식

우리은행은 지난 3일 서울 회현동 본점에서 창립 12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랜 기간 우리은행과 희로애락을 같이한 고객과 역대 은행장 12명, 손태승 우리금융그룹회장 겸 우리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새로운 우리, 미래를 향한 도약'을 주제로 진행됐다. 디지털혁신 주도·글로벌네트워크 확대 등 우리은행의 지난 주요업적을 돌아보고, 2020년 대한민국 대표 리딩뱅크로의 도약이라는 포부를 담은 영상을 시청했다. 이후, 손 회장의 창립기념사를 시작으로 박필준 우리은행 노조위원장의 축사와 고객 대표 한영재 다이아몬드클럽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손 회장은 창립기념사에서 “우리는



우리은행은 지난 3일 서울 회현동 본점에서 창립 12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손태승(가운데) 우리금융그룹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고객 대표, 역대 은행장 등 주요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행은 121년 역사의 민족 정통은행으로서 고객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으로 지금까지 성장해 왔다"며 "고객신뢰 뿐만 아니라 은행 선배들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금융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은행이 돼야 한다"며 우리은행을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초일류 금융기관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전했다.

이날 창립기념식은 '미래동행 다짐' 세레모니로 마무리됐다. 전·현직 은행장, 고객 및 직원대표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고객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성장하는 우리은행의 미래를 기원하는 '미래동행' 다짐문 낭독과 '함께하는 든든한 금융'의 의지를 담은 이벤트로 대미를 장식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인사

◆전북 전주시 ◇ 4급 승진 △ 기획조정국 총무과 최병집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방원 ◇ 4급 전보 △ 덕진구청장 김형조 △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 맑은 물사업본부장 송준상 △ 사회연대지원단장(직제개편) 신계숙 ◇ 5급 승진 △ 기획조정국 조문성 △ 완산구 강재원, 김수정, 배석다 △ 덕진구 최영실, 박원호

◆전북 완주군 ◇ 서기관 승진 △ 행정지원과 강평석 ◇ 직위 승진 및 전보(사무관) △ 행정복지국장 직무대리 전영선 △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송양권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 체육공원과장 강원양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정재조 △ 삼례읍장 김동준 △ 용진면장 강신영 △ 화산면장 여기현 △ 경천면장 강항임

부음

▲ 임명복 씨 별세, 안재균(경인방송 보도국 팀장)씨 장인상 = 5일 오전 4시, 인천시 남동구 가천대길병원 장례식장 301호, 발인 7일 오전 6시, 032-460-9404.

▲ 허만희(전 영선종합고등학교 교장)씨 별세, 허준혁(사업)·허세연(SRT 근무)씨 부친상, 한 임택(특허사무소 근무)씨 장인상 = 4일 오후 4시 30분, 영광종합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7일 오전 10시, 061-350-8044.

▲ 장서안 씨 별세, 박중훈(대한배드민턴협회 사무처장) 씨 부인상 = 4일, 서울아산병원 장

례식장 34호, 발인 6일, 02-3010-2294.

▲ 김교숙 씨 별세, 이용재(파주시 금촌3동장) 씨 모친상·이선영(파주시 민원봉사과) 씨 조모상, 강보슬(파주시 일자리정책과) 씨 시조모상 = 4일 오전 4시,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장례식장 4호실(5일 장례식장 변경 예정), 발인 6일 오전 8시, 장지 동화경모공원, 031-940-9370.

▲ 조희상씨 별세, 조순복(전남도청 인구청년정책관실 팀장)씨 부친상, 조준호(전남도청 지역계획과 주무관)씨 장인상 = 4일 오전, 영광 옥당장례식장 1호실, 발인 6일 오전 7시30분, 061-351-1024.

▲ 고규철(전 충북 검도회장)씨 별세, 고승중·민중씨 부친상 = 4일 오전 0시 20분,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특호, 발인 6일 오전 7시, 043-279-0144.